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갈등과 타협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 민 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정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을 보다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상호작용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남북한 이문화의 문제를 가장 대등하고 밀접하게 경험하는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다르게 성장한 성인으로 형성된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가족 내·외부의 다양한 도전들에 대처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갈등과 타협의 경험은 어떠한가?’와 ‘그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갈등과 타협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 문제 예방 및 해결과 남북한 사람들의 문화적 갈등에 개입하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회복지실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목소리를 조각내지 않고 드러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부부만의 개인적인 은밀한 경험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시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한에 거주하는 남한 주민과 새터민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현재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 다섯 쌍총 10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이었다. 자료 수집은 주로 심층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한 자료원으로 녹취 후 필사본으로 작성된 면담 자료, 현장노트, 연구일지, 연구자와 주고받은 편지, 참여자의 저술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과정은 먼저 현장텍스트(수집된 자료들)를 행간을 따라 반복하여 읽으면서 분석적 메모를 통한 내러티브 주제를 전개하였다. 추가로 확인된 자료를 포함하여, 내러티브적 코딩을 한 후에 전체적-내용분석을 통해서 연구텍스트를 전개하여 각 참여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그들의 경험이야기를 다시 썼다. 다음으로 분류적-내용분석을 통해서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각 이야기를 연구 문제와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모든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 분석과 해석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쳤다.

상기의 과정에서 이끌어 낸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두물머리에서 만나는 과정>이라는 은유적 의미로 도출되었다. 이것은 ‘남북한의 이문화간 상호작용 과정(intercultural process of the North-South Koreans)’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관계·사회적으로 당면한 갈등과 도전에 대해 능동적으로 타협과 변화를 만들어가며 상호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두물머리에서 만난 서로 다름-거센 소용돌이>과 <두물머리에서 찾은 서로 다양함-흐르는 오색물>로 다시 해석되었다. ‘다름-소용돌이’의 의미는 남북한 부부의 갈등 경험으로 자존심, 언어 습관, 돈의 가치, 남녀역할, 관습, 행동방식, 가치, 양육방식에서의 서로 다른 경험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함-오색물’의 의미는 남북한 이문화 부부가 선택한 타협 경험으로 갈등을 개인과 문화의 복합적인 차이로 이해하는 정서치유,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상생, 공통점으로 찾은 가족애, 남한식과 북한식 중 선택하는 본따오기, 서로 성장하는 정체성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의 의미 분석 결과는 그동안 남북한 이질화 문제를 다루었던 분석적 개념들을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확장시켜 주었다 이들이 보여준 갈등과 타협과정의 개념들은 구체적이지 않고 대립적 개념이었던 남북한 특성을 다양하고 상보적 개념으로 다시 바라보게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남북한의 특성으로 논의되어 온 남북한의 돈의 가치, 배급제에 대한 시각, 가부장적 특성 등에 관한 기존 개념들이 해체되고 재구성되었다. 텃새와 배짱 사이, 직설과 간설 사이, 절대와 상대 가치 사이, 차별과 유별 사이, 무심과 세심 사이, 경쟁과 저돌성 사이, 단일과 다양성 사이로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갈등 경험을 설명하는 개념들이 확장되고 이분법적 틀을 벗어남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남북한 사람들의 타협 경험을 정서치유, 상생, 가족애, 본따오기, 정체성 성장 등 새로운 개념들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남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분리된 논의를 통합 발전시켰다. 남북한 부부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의미들의 해체와 확장 그리고 생성은 남북한의 이질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어려움과 해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고 다양화되어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는 결혼과정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분석한 것이다. 이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남북한 이문화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상당한 문제들은 여전히 갈등과 도전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식 행동양식, 남한식 관습, 남북한의 식문화, 재정관리, 양육문제 등은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미해결 과제로 나타났다. 이들은 많은 도전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고, 주변의 도움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이웃, 친구, 가족들이 중요한 중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별거와 이혼, 가정폭력 등의 위기에서도 사회복지사나 전문가의 도움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이들의 경험은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비밀스런 이야기로 전해져 오거나, 사회적 편견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해결 방법을 답습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 사회복지전문가들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한 시간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낸 성공적 이야기들은 실천가와 유사한 도전을 받는 남북한 부부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옹호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회복지적 실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소수자, 북한이주민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문화적 의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주고 남북한에 관한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문화민감도구나 문화지도그림 등의 도구개발, 이문화 부부 상담 및 교육, 소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점과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심리, 관계, 사회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남북한 이문화 부부 사례를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남북한 이문화 부부 연구의 논쟁점을 다룰 수 있게 도왔다.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경험이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남한이라는 동일문화에서 성장한 부부들과 남북한 이문화 부부들의 경험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등이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갈등은 표출된 양상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는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준거 기준(the framework of reference)'은 남한 문화나, 북한 문화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논쟁점 외에도 앞으로 연구에서는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결혼 유형과 기간에 따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다 본질적인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세분화된 초점을 가지고 경험의 특수성과 일반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이문화부부의 갈등과 타협의 경험을 <두물머리에서 만나는 과정>을 통해 찾았다. 그 경험과 의미들은 남북한이 교류하는 다양한 사회 체계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적용가능할 것이며, 후속 연구와 실천에 있어서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